

‘한영불교사전’

서광스님 편찬
불광출판부 / 3만 5천원

‘색즉시공 공즉시색’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서광스님, 국내 첫 ‘한영불교사전’ 펴내

불교는 영어로 부디즘(Buddhism)이다. 부처님 즉 붓다(buddha)의 가르침(-ism)이라는 말이다. 별 어려움없이 영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불교의 많은 경전들과 불보살, 사성제와 팔정도처럼 1:1로 대응되는 낱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불자들을 위한 <한영불교사전(The Korean-English Buddhist Dictionary)>이 불광출판부에서 나왔다.

이 사전은 미국 세이브룩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비구니 서광스님(45·보스톤 서운사 주지)이 낸 것으로, 현재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최신의 불교 용어를 수록한 국내 최초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출판 의미가 크다.

스님은 93년부터 미국인들이 평소 사용하거나 논문·서적 등에 자주 표기 되는 불교용어를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해 놓았다. 그것을 1년 전 사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보충해 이번에 결실을 본 것이다.

“보스톤대에서 공부할 당시 금강경의 저본인 8천송 반야경 영어판을 읽었는데,

영어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0여개 불교용어 수록

한글본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지요. 예를 들자면 금강경의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부분을 영어판에서는 모든 차별을 떠나는 절대평등의 논리로 해석해 놓았어요. 실용적인 서양인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죠. 영원한 진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이끌어내는 실천윤리로서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광 스님은 불교용어들을 영역하며, 수행계위와 유식 등 지나치게 어려워 한글 불교사전의 설명만으로는 그 뜻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일부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본래면목(本來面目):the original nature of mind’, ‘성불(成佛):becoming a buddha’,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Form is nothing other than emptiness/emptiness is nothing other than fom’ 등 5000여개의 불교용어를 수록한 이 사전은 한글과 한자,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를 병기하고, 영문 개념은 물론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수백 권의 불교서적과 논문에서 찾은 생생한 용례와 해석을 담았다. 이런 까닭에 한문보다 영어에 더 친근한 젊은 불자들에게는 불교를 이해하는 입문서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인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 역사나 문화재 같은 부분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기회가 닿는 대로 영역하여,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은자 기자

‘침체’, ‘틱낫한’, ‘달라이라마’. 올해 불교 출판을 관통한 단어들이다. 불교출판은 올해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달에 책 한권 내기도 빠듯한 것이 불교출판사 대부분의 현실이었다. MBC TV의 ‘느낌표’에 소개된 이른바 느낌표 브랜드 책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KBS의 TV, 책을 말한다, MBC의 ‘행복한 책읽기’ 등 방송의 책 소개 프로그램 확대, 시민단체들의 독서운동 등으로 모처럼 출판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대조적이었다.

2002년 불교출판계

침체 지속...한달 한권 내기도 빠듯

김영사, 열림원, 명진출판사, 해냄출판사 등 종합 출판사들의 불교 책 출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들 출판사에서 주도적으로 펴낸 틱낫한과 달라이라마의 책들은 올 한해 전체 출판계의 화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틱낫한과 달라이라마의 책들은 올해 꾸준한 인기를 유지했고, 이 가운데 <화>(틱낫한, 명진출판)는 70만부가 팔린 <뇌>(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림원)에 이어 50만부가 넘게 팔려나가 국내 베스트셀러집계 2위에 올랐다.



◇2002년 불교출판계는 여행·명상·건강 등 다양한 소재의 책들이 출간됐으나, 이렇다 할 활약을 내지 못한 채 전반적인 침체를 거듭했다.

틱낫한·달라이라마 인기 꾸준히 유지

문화재 등 불교문화 소개 영역서 눈길

‘화’ 50만부 팔려...국내 베스트셀러 2위

자본·마케팅 열세 불교출판업체 고전

종합 출판사들의 불교 책 출간 경쟁으로 인해 자본과 마케팅 등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불교 출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올 한해 출간된 불교 책들을 살펴보면, 사찰 답사·여행 안내서 등이 꾸준함을 유지했으며, 여느 해와 달리 불교 관련 문화재나 사찰의 전설,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를 소개한 영역

서들의 출간도 눈길을 끌었다. 마음수행, 명상 등을 주제로 한 읽을거리들도 다수 선을 보였으나, 틱낫한과 달라이라마의 열풍을 잠재울 만한 역작은 없었다.

한편, 올해 출판계는 느낌표 등 방송에 소개된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거머쥔 반면, 불교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전개됐다. 지나친 상업주의로 독서시장을 왜곡시켜, 출판인들의 신간 출

간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부정론과 전체 출판 시장의 매출확대에 기여해 급격하게 붐과하고 있는 유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청소년들의 독서유발 효과도 가져왔다는 긍정론으로 나뉘었다. 이밖에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통과로 인한 도서정가제의 재확립, 95년 역사의 종로서적도산 등도 올 출판계의 이슈들이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동자승의 크리스마스’

박관호 원작 / 남찬수 글 / 박지은 그림

가교출판 / 8천원



종교예술영화제 대상수상

단편영화를 동화로 재구성

<동자승의 크리스마스>는 올해 종교예술영화제 대상 수상하고, 부천·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던 박관호 씨의 단편영화 ‘나무아미타불 크리스마스’를 동화로 재구성 한 것이다. 강원도 산골의 절에 사는 동자승과 이

‘열린 마음으로 종교이해’ 메시지

시골마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는 마리가 주인공이다. 둘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이다.

12월 어느날 동자승은 마리로부터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놀러 오라는 초대카드를 받는다. 절에서만 자란 동자승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마리가 초대했기 때

문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작은 스님은 큰 스님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시간만 가는데... 우연히 카드를 본 큰 스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교회에 간 동자승은 친구들과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즐거움에 도취한다. 너무 늦은 귀가에 집짓 걱정하던 동자승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자 컴컴한 절 마당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밝혀지고, 거기에 동자승을 꼭 닮은 인형이 동자승을 향해 웃음 짓는다는 따뜻한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종교간의 차이와 특수성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출판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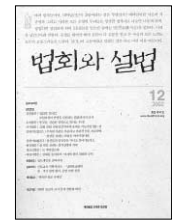
이형기 시인 고회시집 출간

빼어난 시적 감성과 논리적 이성으로 한국의 시문학계와 평론계를 이끌었던 남연 이형기 시인의 고회시집 <낙화>(연기사가 나왔다. 이 시집은 400여편에 이르는 이 시인의 작품 가운데 150편을 뽑아 실었으며, 작가론과 작품론, 연보, 저서, 연구 서지까지 담아놓아 그의 55년에 이르는 시적 여정을 충실히 전집이라 할만하다. 이 시인은 지금 병상에 있지만, 초기시 이래의 존재론적인 성찰을 통해 깊은 울림을 주는 시작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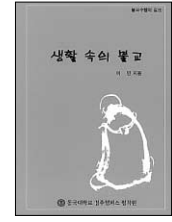
‘우리옆에 왔던 부처’ 재출간

성철 큰 스님의 전기소설 <우리옆에 왔던 부처>가 북앤필름에서 재출간됐다. 소설가 이청 씨가 펴낸 이 책은 성철 스님의 열반 직후 초판이 발행된 이후 9년 만에 나온 증보판이다.



‘법회와 설법’ 12월호 나와

포교원이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 12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동짓날과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길 등의 주제 법문을 담았다. 또 제8차 포교사 고시 문제 정답과 해설을 포교 자료로 실었다. 별책 부록으로 가려 뽑은 부처님 말씀도 펴냈다.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9번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업스님)에서 발행하는 소책자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의 9번째 책 <생활 속의 불교>는 불교문화대학장인 이만 교수의 법문을 모은 것이다. 차 한잔의 여유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책방 여시이문예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이문
2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림
4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사
5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금강경	우룡 스님	효림
6	바로 이번 생에	우똘 디파	불광출판부
7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임지 스님	민족사
8	서장공부	김태완	여시이문
9	마음고요	정목 스님	학교재
10	달마 서양으로 가다	진우기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02)737-0695 / 팩스: 02)737-0696